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이단’ 등의 헛된 미망이라고 치부하고 말 뿐,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록 남들의 눈에 ‘이단’ 일망정, 그들에게 병역은 ‘천형(天刑)과도 같다. 이 책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 찬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놀라운 것은, 저자가 흔히 말하는 전통 그리고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 배경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다. 그런 점에서 김두식 교수의 《평화의 얼굴》은 종교를 떠나 이 땅의 ‘평화’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는 사상서라고도 할 수 있다.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을 부재로 한 이 책에서 ‘평화’는 전쟁 중이라는 저자의 화두는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신화 속에 숨겨진 신들의 사랑 이야기

신들 가운데 최고의 난봉꾼이었던 제우스를 남편으로 둔 탓에 헤라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야만 했고,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 칼리토스, 레토는 헤라의 저주로 가혹한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사랑의 여신이기는 하지만 아프로디테 역시 남편인 헤파이토스 외에 아레스와 다오니스, 디오니소스와 사랑을 나누었다. 자신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연인에게 맹세해 놓고, 결국 새로운 정인에게 마음을 빼긴 다프니스와 아티스는 사랑이 변한 대가로 연인에게 각각 눈과 남근을 빼앗겼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서로 자신 때문에 연인이 자살했다고 생각해 이생의 사랑을 위해 목숨을 끊었다. 이 외에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계락을 사용한 베스툼누스, 히포메데스, 야누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 신들의 사랑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주는 거울이다. 저자는 신화 속에서 꼬집어낸 25가지 각기 다른 사랑의 면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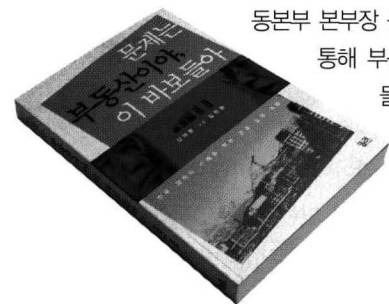


바보들아, 문제는 부동산이라니까

처음 이 책을 집어 들고는 피식 웃었다. 흔하디 흔해진 부동산 투자 지침서쯤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제목이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저자, 아니 대담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찬 바람이 불었다.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불로소득(不勞所得)을 가장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까지 발전(?)해 버린 부동산 문제의 진단과 대안을 위해 한국 경제계의 브레인이라 평가받는 두 형제가 머리를 맞대었다.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1998년 국민의 정부 초대 대통령 경제수석을 발탁되면서 한국 경제를 보는 탁월한 안목을 제시해

왔다. 한국건설정보 김현동 대표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부부장 등 시민단체에서의 노련한 활동을 통해 부동산에 해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대답을 담은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안목과 대안을 제시한다. **★**

글 장동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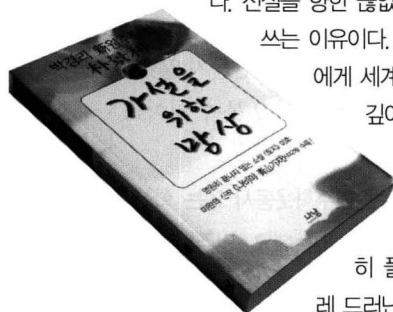


내 인생이 문학, 문학이 내 인생

“왜 쓰는가, 하는 물음은 왜 사는가, 하는 물음과 통합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물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게 합니다. 삶의 터전이며 조건반사인 현실은, 그러나 완전한 것이 못되고 또한 현실은 토막 낸 한 단면도 아니며 반복도 아니며 끝없는 연속,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거대한 산맥이라고 불리는 박경리 작가, 《가설을 위한 망상》에서 선생은 ‘작가는 왜 쓰는가’라는 주제로 작가로서의 정신을 녹여냈다.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물음, 박경리 선생이 글을 쓰는 이유이다. 이 책에 실린 산문들은 우리에게 세계와 인간, 문학에 대한 작가의 깊이 있는 성찰을 맛보게 한다. 작은 것 하나에도 모든 것을 담아내는, 거대한 한국 근대사를 한 작품 속에 소소히 풀어낸 작가의 공력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

글 정윤희 기자



- 《평화의 얼굴》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356쪽 | 값 14,000원
-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김태동 · 김현동 지음 | 궁리 | 380쪽 | 값 15,000원
- 《신화, 사랑을 이야기하다》 최복현 지음 | 이문아침 | 232쪽 | 값 10,000원
- 《가설을 위한 망상》 박경리 지음 | 나남 | 344쪽 | 값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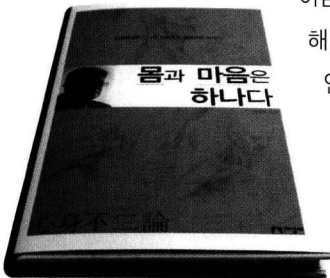
삶을 노래하고 위로했던 71인의 문인 사진 담아

귀한 사진들이 한 권에 담겼다. 우리시대 문인 71인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도 있고,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학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들도 있다. 사진작가 육명심 씨는 이들을 만났을 당시의 이야기를 담백한 글로 소개한다. 문인들의 사진을 찍어온 것이 어느덧 30여 년. 첫 만남의 어색함에서부터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작가들과 허물없이 술도 한 잔 나누며 그들의 순수하고 소박한 순간을 포착해 낸 작가의 솜씨에 감탄한다.



1세대 원로 생물학자의 생명 철학서

‘곤충발생학의 거목’으로 불리는 전 고려대 생물학과 김창환 교수의 생명사상 에세이. “인간의 정신헌동(마음)은 뇌라는 육체에서 조형해내고 육체는 다시 정신(마음)의 지배하에 활동한다”는 심신불이론(몸과 마음은 하나)을 지지하는 노학자는 책을 통해 생명 현상 과정을 설명하고 그 위에 우리의 몸은 ‘유전정보’를 자손에게 전하는 ‘운반체’라는 사유를 덧붙인다. 책의 말미에 생물학적인 노화 매커니즘과 ‘죽음’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담아냄으로써 생명력의 본질인 ‘뇌’를 비롯해 크게는 인간의 생을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후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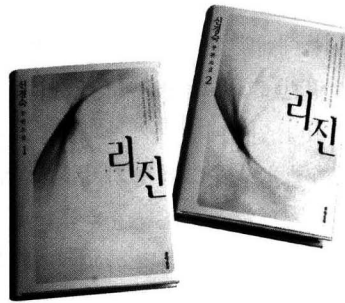


글_송보경 기자

존재의 흔적이 소멸된 자리에 찾아온 ‘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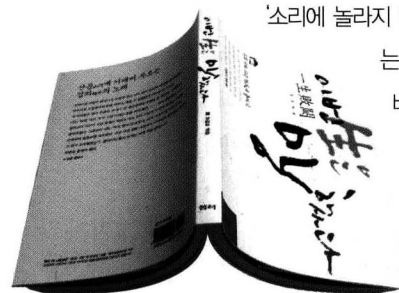
궁중 무희였던 여자가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과 사랑에 빠져 프랑스로 건너갔다. 다시 외교관과 조선에 돌아온 여자는 외교관을 홀로 떠나보내고 ‘금종이’를 삼켜 자살한다.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이 ‘고인 물’과 같았던 그 시절에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궁녀의 신분으로 이방의 나라로 건너갔던, 그러나 마지막은 슬펐던 여인.

‘리진’은 어떤 작가에게나 매력적인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신경숙이 ‘리진’을 택했다고 했을 때 ‘의외’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역사소설은 그녀와 맞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일까. 하지만 그녀가 리진을 택한 것이 아니라 리진이 그녀에게 온 모양이다. 존재의 흔적이 소멸된 자리에서 진정한 빛을 발해온 작가의 아름다운 문장들이 《리진》을 통해서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한다. 6년 동안 작가의 신작을 기다려온 독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작품이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 이르게 된 수행자의 삶

우리 시대 이름난 고승 18인의 출가기를 담은 산문집이다. 마음속의 부처를 찾아 떠난, 용기 있는 ‘출가기’에 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 반어와 역설의 겸사(謙辭)가 바로 선승들의 견처(견달음)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젊은 시절 가출, 자살 시도 등 술한 방향 끝에 출가에 이른 청화 스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한 세숫대야에서 식발을 한 탁연 스님 이야기 등 혹독한 과정을 겪으며 이르게 된 ‘수행자로서의 삶’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법구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책이다. **후쿠**

글_이주연 기자

《육명심의 문인의 초상》 육명심 글·사진 | 열음사 | 296쪽 | 값 20,000원

《몸과 마음은 하나다》 김창환 지음 | 지성사 | 176쪽 | 값 15,000원

《리진》(전2권) 신경숙 지음 | 문학동네 | 1권 293쪽, 2권 357쪽 | 각권 값 9,800원

《이번 생은 망했다》 유응오 엮음 | 샘터 | 240쪽 | 값 9,000원